



동구 인문학당에서 열리는 '추억의 소년소녀 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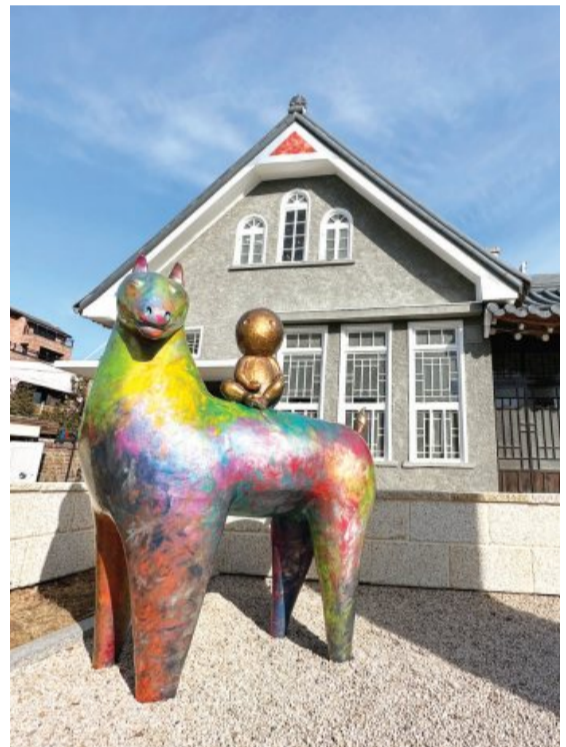
#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아시나요

동구 인문학당 '추억의 도서전' 계몽사명작전집·계림문고시리즈 등 조대영 씨 소장품 2000여권 전시 위재환 '몽상가' 전... 22일 드로잉

"와, 이 책 우리집에 있던 건데.",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책이 있네." 책장에서 '쌍무지개 뜨는 언덕', '보물섬' 등을 집어 든 이들에게서 탄성이 나왔다. 나 역시 닳도록 읽었던 '딱따구리 그레이트북스'를 발견하고 환호했다. 계몽사 명작전집, 계림문고 시리즈 등 순식간에 우리를 '국민학생' 시절로 데려간 낡고 오래된 책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난다. 괴도 루팡, 15소년 표류기 등 책 속 주인공이 담긴 행사 포스터를 보고 한명 한명 주인공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광주시 동구 인문학당이 상반기 기획전으로 준비한 '추억의 소년소녀 도서전'은 이 책을 읽었을 당시의 '소년소녀들'을 단번에 소환한다. 요즘 아이들도 같은 동화를 '다른 버전'으로 읽었을 터. 그래서 이번 전시는 어른, 아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획이다. 더불어 정월에서는 동화적 감성이 물씬 풍기는 조각가 위재환 작가의 특별전시 '몽상가' 전까지 열려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해준다. 1954년 지어진 인문학당(동계전로 168-5)은 건물 자체가 과거로의 여행이다. 지난해 초 서석교회 주차장 바로 옆에 문을 연 인문학당은 사랑채로 쓰인 양옥과 안채로 쓰인 한옥이 이어진 오래된 기옥과 신축 건물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붉은 벽돌, 낮은 나

무바닥, 동화에 등장할 것같은 삼각지붕의 양옥집이 눈길을 끈다. 전시에서 만나는 책 2000여권은 인문학당 인문관 프로그램 디렉터 조대영씨의 소장품이다. 조 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고 있는 화제의 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에서 2만여점의 비디오 테이프를 전시중이기도 하다. 전시된 책들은 1960-70년대 유년기를 보낸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책들로 집에서, 도서관에서 읽었던 것들이다. 당시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들은 전집류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책을 사들여 아이들에게 읽혔고, 학교 도서관에는 온갖 책들이 꽂혀 있었다. 전시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계몽사 판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 국내 유명 화가들이 직접 삽화를 그린 120권 짜리 '계몽사 문고', 한국전래동화부터 외국 동화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100권 전집 '딱따구리 그레이트북스', 만화책 표지가 인상적이었던 계림문고 '컬러 판 소년소녀 라이브러리' 등을 만난다. 또 1980년대 인기 높았던 창작 동화시리즈 'ABE(에이브)'와 '페르헨' 전집 등도 눈길을 끈다. 당시 집집마다 갖춰놓았던 학습대백사전도 전시됐다. 한국 최초의 컬러판 대백사전이었던 1972년 계몽사 판 '컬러학습대백과' (전 8권), 금성출판사에서 10권으로 내놓은 '아동학습백과', 1980년 국민서관에서 선보인 '학습사전 시리즈' (14권) 등이다. 전시장 밖 마당에서 펼쳐지는 위재환 작가의 전시는 도서전과 딱 맞는 기획이다. '몽상가'를 주제로 한 그의 작품은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말 등에 올라탄 몽상가, 커다란 코블스, 동물의 등에 올라타 질주하는 긴 발의 사내 등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풀어낸 작품은

유쾌하다. 또 서가에서도 꿈을 꾸는 작은 몽상가 조각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22일(오전 10시-낮 12시)에는 위재환 작가와 함께하는 드로잉 행사가 열린다. 이날 이벤트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가가 참여자들의 주문을 받아 즉흥적으로 그려주는 '라이브 드로잉' 행사를 진행한다. 그의 드로잉은 세밀하고, 사실적이며 때론 환상적이다. 문의 062-608-2176.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동구 인문학당 마당에 전시된 위재환 작 '몽상가'



2022 사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하선의 작품.

##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콘테스트

사진·백일장 부문... 화엄사 누리집 통해 접수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화엄사는 홍매화·들매화 사진, 백일장 콘테스트를 연다.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화엄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출품은 개인당 한 작품으로 한 정한다. 프로 사진과 휴대폰 카메라 사진으로 나눠 평가하며 선착순 참가자 100명에게는 제네시스 BBQ에서 치킨 상품권을 증정한다. 홍매화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3월 18일에는 작은 음악회와 함께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백일장도 열린다. 16일부터 화엄사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500명을 신청받으며 백일장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급받은 원고지와 불펜을 이용해 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화엄사 누리집과 BBS 블로그를 통해 공지된다. 프로 사진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300만원, 템플스테이 1박 2일 상품권 등을 준다. 휴대폰 사진 수상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템플스테이 1박 2일 상품권부터 최대 300만원 상당의 도예작품을 수여한다. 백일장 수상자도 30만~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문의 061-783-76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입장권 살 결심'

광주비엔날레 D-50 기념 온라인 이벤트

홀리데이인 호텔 숙박권 등 (제)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D-50을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고 입장권을 보다 즐겁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함께 마련했다. 특히 호텔, 숙박 등의 경품을 제공해 광주에 여행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7일까지 진행되는 '입장권 살 결심'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티스에서 입장권 구입 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예매번호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경품으로는 홀리데이인 호텔 이그제큐티브 숙박권(2인 조식 뷔페 및 사우나 포함) 2명을 비롯해 호텔 레스토랑 식사 뷔페 2인 식사권(1명) 중식 뷔페 2인 식사권(1명), KTX내일로티켓(10명), 유료 쿠폰(30명)이 제공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4일 비엔날레 인스타그램.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2023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강사진은 ▲판소리 중급반의 방성춘(광주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이순자( " 남도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선이( " 남도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조급반 박미정( " 판소리 춘향가 전승교육사) ▲판소리고법 양신승( "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 ▲청소년 가야금병창 문명자( " 가야금병창 보유자), 이영애( " 가야금병창 보유자) ▲성인반 황승욱( " 가야금병창 보유자) ▲전통음식 최영자( " 남도의례음식장 보유자), 이애섭( " 남도의례음식장 보유자) ▲탱화 송광무( " 탱화장 보유자) ▲장구만들기 이복수( " 악기장 보유자) ▲민화 이성임(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다. 한편 상반기 강좌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1회씩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광 출신 이성자 작가 '이름을 불러주세요'·'비밀 씨앗' '2023 읽어주기 좋은 책' 선정

영광출신 이성자 동화작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와 '비밀 씨앗'이 '2023 읽어주기 좋은 책'으로 선정됐다. (사)책읽어주기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 읽어주기 좋은 책'에 이 작가의 작품이 두 권 포함됐다. '이름을 불러주세요'(책마중)는 작은 꽃을 통해 아이들에게 관심과 배려,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심에 초점을 맞췄다. 작은 꽃잎들을 보며 용기를 얻는 순영이라는 아이의 모습에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한다. '비밀 씨앗'(고래책방)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싹 트는 꿈과 꿈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다. 모양과 향기는 달라도 언젠가는 예쁜 꽃을 피워내고야 말겠다는 야무진 꿈은 기다림과 노력으로 전이된다. 읽어주기 좋은 책은 소년한국일보와 책읽어주기 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선정된 동화책 목록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이성자 작가는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동시집 '기특한 생각', '영당이에 빨랐다' 등과 동화집 '핑킨 날다!', '두근두근 목정밭'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시아의 전쟁과 치유, 성찰을 묻다 '전쟁후에'

ACC·덴마크 오딘극단 제작 21일부터 유럽 4개국 무대에

아시아 문화자원을 토대로 제작한 작품 '전쟁후에'(AFTER WAR)는 아시아의 전쟁과 치유, 성찰을 묻는 작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덴마크 오딘극단이 2019년부터 3년간 제작했으며 전쟁의 참상과 이후의 과정을 그렸다. 특히 전쟁은 무엇이며 누가 시작했는지,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는다. '전쟁후에'가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4개국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ACC재단은 오는 21일 덴마크 오딘극단을 시작으로 독일 스튜디오 7(24일), 스웨덴 옹도멘스하우스(26일), 폴란드 림파 쿨투라(28일)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죽은 원혼들 사이에서 자신이 전쟁의 일부였



ACC와 덴마크 오딘극단이 제작한 '전쟁후에'. (ACC 제공)

다는 사실을 깨닫고 답을 찾아가는 청년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관객을 향해 묻는 장면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게 한다. 전쟁과 항쟁, 이후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음악과 몸짓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극의 시작과 함께 300kg에 달하

는 헤비리키씨가 무대에 흠뻑뿌려 관심을 환기한다. 얼굴 없는 귀리인형들, 허공에 매달린 그네 등 다양한 상징적 장치물들이 배치돼 호기심과 상상을 유도한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는 유통을 위해 기존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재제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